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 분들을 더욱 청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 732 / 393-1210
Fax 732 / 393-1140
www.DrDouglasLee.com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KWIK
퀵 모기지
주/택/응/자/전/문

다양한응자상품, 전화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Century 21 REALTOR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프/린/스/틴/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08542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United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물거름 약국, 천연한 약국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D. 약학박사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카톡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감자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B&B
Auto Repair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Tel (732) 985-9500
Fax (732) 985-7637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Su-Ra Catering
(구)수릿상
새로 이전한 수라케이터링에서
더 깊이진 흥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클리닉
732-248-1980 | 1939 RT.27 Edison NJ 08817

Central Funeral Home
중앙 장의사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E
AUTO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HYUNDAI
TOYOTA KIA MAZDA Jeep CHRYSLER
모든차종,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2021년
4월 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외젠 뷔르낭의 <무덤으로 달러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오르세 미술관, 파리, 1989.

< 이번 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사도행전 10,34-37-43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3,1-4

복음환호송 1코린 5,7,8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음 요한 20,1-9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 / 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4/05/21	사도행전 2,14.22-33	마태오 28,8-15
화요일 04/06/21	사도행전 2,36-41	요한 20,11-18
수요일 04/07/21	사도행전 3,1-10	루카 24,13-35
목요일 04/08/21	사도행전 3,11-26	루카 24,35-48
금요일 04/09/21	사도행전 4,1-12	마르코 16,9-15
토요일 04/10/21	사도행전 4,13-21	마르코 16,9-15
일요일 04/11/21	사도행전 4,32-35	요한 20,19-31
	요한 1서 5,1-6	

미사지향

- 연미사** (봉헌자)
- 정인규 - 가족
 - 김명규 - 안현정(소화데레사)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홍순연(비안나)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이화자(마틸다) - 가족
 - 윤옥선 - 가족
 - 황학성(야고보) - 가족
 - 오소연(마리아) - 오용덕(헨리코)
 - 한기석 - 한상철(빈센치오)
 - 이동현(요셉) - 이순재(마리아)
 - 박영숙(마리아) - 이순재(마리아)

- 생미사** (봉헌자)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이종실(프란체스코) -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김삼식(베드로) -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안기산 - 안현정(소화데레사)
 - 이혜숙 - 이순재(마리아) 가족
 - 서 펠릭스의 견진성사와 김 마르셀라의 세례성사 축하

교무금 납부 안내

오용덕(3-4)	황태진(3-4)	이용문(3)
안현정(1-12)	이창우(3)	조인(1-6)
최영찬(3-4)	합계: \$1,975	

주일 헌금 납부 안내

주일 미사 참여 68명	합계: \$643
2차 헌금 (은퇴사제)	합계: \$360
Snow Removal \$15,389 (OLM \$8,654; KCC \$6,735)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미사봉헌(생미사/연미사) 예물
- Payable to OLM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정영철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용덕 헨리코, 김삼식 베드로, 오옥순 수산나, 김경희 수산나, 백영숙 헬레나, 유희자 베로니카

공지 사항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2차헌금 안내

- 4월 18일 주일 미사 중 성당 유틸리티 비용을 위한 2차 헌금
- 4월 25일 주일 미사 중 Catholic Relief Services단체 지원을 위한 2차 헌금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대형 매일미사책 구독 신청

- 기존 매일미사 책 보다 큰 사이즈인 "대형 매일미사책"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사무장 (732-258-5998)

2021년 Bishop's Annual Appeal (Transformed by Christ Body and Blood Sent on Mission to Light a Fire in the Heart of the Church)

- 각 가정에서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이용하여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http://diometuchen.org/BAA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합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1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라디오 미사 (주파수 FM 100.1MHz)

- 주일미사와 같은 시간에 FM라디오를 통한 미사를 시행합니다. 라디오 방송 미사에 참여하실 분은 성당 옆 큰 주차장의 지정된 지역에 주차 후 주파수를 FM 100.1MHz로 맞추시고 미사를 청취하시면 됩니다. 미사 후 기다리시면 신부님께서 직접 차량을 방문하시어 성체분배를 해주십니다.

성당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1. 우편으로 납부

본실위험으로 인해 체크만 가능하며,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OLM)

2. 현금으로 납부

- 1) 사제관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 2) 구역장님이나 대리인이 수거하여 사제관 우체통에 넣어주시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봉투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목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Venmo

친구찾기로 "SBB-LEE"찾으시고, 프로필에 성당 사진과 Nam-woong Lee 이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는 세대주 성함과 헌금 종류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사무장(732-258-5998)

<요한복음> 20,1-9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씻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 묵상 나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질문1. 내가 대답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질문 2.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지 나눠봅시다.

성당 소식



매년 하는 성당 화단 가꾸기 일이지만, 올해의 화단 가꾸기는 조금은 더 특별히 다가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성당에서 지내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의 영적 육적인 건강도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이 만드신 자연의 생명력은 끊이지 않고 새롭게 변화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움틔습니다. 겨울 동안 움츠리고 있던 우리 성당의 화단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화단 가꾸기 작업이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우리를 향한 손길을 보여 주는 듯 합니다. 곧, 부활의 은총으로 주님은 우리를 열심히 아직도 가꾸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성당을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 줄 꽃과 여러 식물들이 자라는 화단 가꾸기에 봉사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